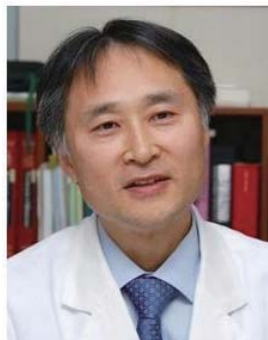


| 발 간 사 |

봉사와 참여 그리고 사랑으로 얻은 50년의 결실



올해 11월 11일은 우리 대한감염학회가 창립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회가 출범하던 시절에는 항생제와 백신의 보급으로 선진국에서는 감염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감염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감염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학회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회가 창립된 초창기에는 앞으로 감염병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는 감염병이 더욱 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에 출현한 에이즈는 아직도 정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화에 따른 SARS의 출현을 경험하였고, 내성균과 의료관련 감염증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면역환자의 증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학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회원의 수는 벌써 1천 명을 넘어섰고, 학술대회의 참가자 수도 5백 명을 넘습니다. 학회가 1969년부터 한해에 1권씩 발간하기 시작한 학술지는 1984년부터는 2권씩, 1987년부터는 4권씩, 그리고 1995년부터는 6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명예회장이신 정희영 교수께서 발간하신 [항생제의

길잡이(1983년)]를 이어받아 학회 주관으로 [개정판 항생제의 길잡이(2000년)], [제3판 항생제의 길잡이(2008년)]를 출판하였습니다. 학회 회원 100여 명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교과서 [감염학(2007년)]을 출판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지침서인 [성인예방접종(2007년)]도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시대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전염병의 역사를 정리하여 [한국전염병사(2009)]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회를 창립하고 이끌어 주신 전임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가 걸어 온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기 위해서 [대한감염학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긴 시간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문원 전임 회장님께서 [대한감염학회 40년사]를 발간하여 첫 40년 역사를 이미 정리해 두셨기에 감히 50년사를 발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편찬 작업을 맡아 수고하신 정희진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오명돈

| 기 념 사 |

대한감염학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결성된 분과학회로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대한감염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를 하게 됨을 대한감염학회 회장으로서 또한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하는 개인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1961년 11월 1일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고 기용숙 교수와 41명의 관계 인사들이 모여 발족되었고 당시 한국의 보건 역학 의료 환경을 돌이켜 볼 때, 감염병 관리는 한국 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분야였습니다. 학회를 통한 감염병 관리 및 연구는 나아가 국민 보건향상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감염질환의 추세도 변하고, 이에 따라 그것에 대응하여 감염병 관리를 지속해 온 것은 한국 감염질환의 변천이자 나아가 본 학회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학회는, 월례 집담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 학회 공식 의학학술지인 [Infection and Chemotherapy]지의 발간을 통한 연구발표 및 저술활동, 당시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역학연구 활동과 치료 사업,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도 계몽사업, [항생제의 길잡이], [성인예방접종] 발간 사업 등 눈부신 활동을 해왔고, 이 역사

를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집]으로 2001년에 집대성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대적으로 변하는 감염질환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내용의 [감염학]의 개정판을 출판하여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상기 발간 서적들의 개정판 작업도 준비중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학회 운영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대한감염학회가 앞서서 학회지의 단일화 대한화학요법학회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본 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 학회의 역사가 한국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관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발판으로 해서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서, 향후 우리 학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새로운 반세기의 출발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회장 차성호

| 축 사 |

친애하는 대한감염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감염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매우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해 온 감염질환 정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항생제 내성균 감염과 같은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의 등장 때마다 의료계는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한감염학회는 이러한 감염질환의 전문적인 의료인들의 학회로서 진료,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염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해 준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동안 대한감염학회의 지대한 기여와 공로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축 사 |

대한감염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25 동란을 거치면서 시대적인 혼돈과 그에 따른 전염병 질환의 만연에 대한 위험성을 예견한 선각자에 의해 1961년 11월에 만들어진 대한감염학회는 학회 창립을 계기로 급속도의 학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전염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왔고 특히 중세 유럽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을 비롯한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근세에는 항생제의 개발로 한때는 모든 감염질환이 정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새로운 내성균의 출현과 전파, 병원 감염의 심각성, 면역저하 환자의 급증, 신종 전염병의 등장 등으로 감염 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학문을 다루는 대한감염학회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전염병과 감염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방역사업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고위험성 전염성 질환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성과는 대한감염학회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연구활동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항생제사용 및 처방을 위한 교육과 계몽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최근에는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학회의 고유한 역할인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감염 관련 학회와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의 유기적인 상호보완과 협력을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화학요법학회와 [Infection and Chemotherapy (감염과 화학요법)]이라는 학술지 통합을 성사시켰는데, 이를 통해 학문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연관학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를 하였고 국제학술지로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대한감염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중에서 학회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학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과 비견되는 대한감염학회의 눈부신 발전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창립이후 대한감염학회를 이끌어온 선배 의학자들과 역대 임원, 원로 회원님들의 숨은 땀과 피가 있었다는 것을 후학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감염학회가 전염병 통제와 항생제 관리를 통해 한국의 의료수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준비해 오신 차성호 회장님, 오명돈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의학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회의 앞으로의 50년·100년을 계획하고 회원 간의 유대가 한층 더 강화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대한감염학회 회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대한의학회 회장 김성덕

| 축 사 |

존경하는 대한감염학회 회원 여러분!



1961년 창립된 대한감염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감염학회 회원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학회 임원으로, 그리고 학회 창립 40주년 당시 기념식을 주관 하였던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내과학회를 대표하여 이러한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또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학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역대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학회 초창기에 전종휘, 정희영 두 분 명예회장의 헌신적인 활동은 감염학회가 50년의 역사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뜻 깊은 50주년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 학회에서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대부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특히 1980년 전 까지만 하여도 회원 수가 많지 않았고, 연제발표수도 오늘날에 비하면 턱없을 정도로 적었으며, 특히 학술대회를 후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별로 없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술대회를 성모병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회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새로운 항생제들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학술대회 참가자 수와 발표 연제 수가 늘어나 학술대회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학회 규모를 비교해 보면 회원 수가 창립 40주년이던 2001년에 486명이던 것이 현재 1,734명으로 증가하였고, 학술대회 참석인원은 1970년대까지 50명을 잘 넘어가지 않았으며 40주년 즈음하여서는 200여명으로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좋아하였으나 근래는 참석 인원이 500여명으로, 발전 속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빨라지는 것을 모든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렙토스피라병, 쯔쯔가무시병, AIDS, SARS, 신종플루 등 새로운 감염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학회 규모가 커졌으며, 대한감염학회가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간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학술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회에서 발간한 [항생제의 길잡이], [감염학], 그리고 [한국전염병사] 등의 책들은 감염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에게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항생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은 늦은 감이 있으나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모아 항생제의 오남용을 바로잡는데 있어, 또한 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감염학회의 50주년을 맞아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대한감염학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활동을 주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강문원**

| 축 사 |

대한감염학회 50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감염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감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대한감염학회가 창립 반세기를 맞이하여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한화학요법 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감염질환을 전공하려는 의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감염학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한 일부 선도자에 의해 대한감염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한화학요법

학회의 창립자이시기도 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예방, 치료 및 연구발전을 통해 의학계와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1961년 41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학회는 2011년에는 회원수가 1,714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학술적 연구 및 교류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엄연한 보건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의 파트너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큰 몫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감염관련 종합 학술대회를 기획하여, 매년 10개의 국내 감염관련 학회들이 공동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면서 국내 감염학계의 상호발전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역대 회장 및 임원들 이하 대한감염학회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값진 헌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초기 항생제의 출현으로 감염병의 시대는 저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였고, AIDS 와 SARS 등 신종 감염질환의 출현과 말라리아 같은 과거의 질환

이 재출현 하였고, 지난 2009년에는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대한감염학회 회원들은 의료계의 최 일선에 서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다제내성 세균의 확산과 의료관련 감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시시각각 마스크를 통하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종 감염질환들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 시대에서의 대한감염학회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해졌으며, 학회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감염학회가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통하여 또 하나의 성공적인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저희 대한화학요법학회도 영원한 지지자로 동참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감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학회 50년사 발간과 기념 학술대회를 준비 하신 오명돈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대한화학요법학회 회장 김민자